대관령 뷰세지 :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리를 찾은 소년 (9 페이지를 보시오)
당신도 기도를 가르칠수 있습니다
영감의 멘체지

골든 비, 헨크러
(12사도 경원회)

역원을 맡고 계시는 분, 교사와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가족의 여러분이시는 분에 게 삼가 청하고 신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혼에 멋질을 주며, 가정을 단단하게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영적인 약속의 기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포스의 옛 예언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난이 이들리라. 내가 기쁨을 맡에 보내리니, 영광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 못한 기약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늘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말하여 얻혀져서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가 다 길하여 피곤한리라.' (아포스 8: 11~13)

나라 안에는 골주림과 골중-주님의 말씀에 대한 십리 골주림과 영적인 일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갓이-이 있음을. 영혼을 얻지 하지 않는 외업과 기치는 우리 것이니. 저는 성향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어 젊음없이 주의 영광을 구하고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여 노력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침의 은사로써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성 12: 1~26) 계시를 통하여 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4권 제12호

순서

1968년 12월호

권두언 :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이비드 오. 베케이........................................1
성탄절의 기적 손 톱데.........................................................3
당신도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인 제인슨........................................6
진리를 찾아 소년 하편 더불어요. 루이스........................................9
관리 감독단 페이지 : 결심..................................................12
상호 부조회 : 성탄절의 어린양 엘라일 엠. 베케이..........................14
주일학교 : 행복한 모험 푸실 네손 젠투..................................16
청소년 편 : 복음의 표준과 인기 폴 에이워. 민........................................19
보장 없는 나의 방에서 계리 알. 헤치..................................22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트루리 리취......................................22
상호 멘체지 : 상호 푸시회를 통한 개인의 완성..............................23
지방부당단 멘체지 :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기까지 박 제암........................25
내외소식.................................................................26

어린이 성도의 벽

성탄절에 사원 친구

<언주 탐정소설> 나비란의 비밀 제 3회
여러 성냥절에는 구세주의 생명 가운데 있었던 일로, 구세주께서 하신 영적인 인상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구세주께서 나한가히보셨던 때의 이 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끝낙한 성경구절을 인용해 보면

성냥절을 맞이하여

대관령 데이비드 오. 맥케이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하지 아니하리라.」(요 6:66)

나가가는 제자들을 따라 보시다가 날아가는 열 풍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하시니, 시몬 페드로가 자기의 성격 그대로 대답하기를 「주여, 영광의 말씀이 제시에 우리가 놀이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성들 믿고 않았습니다.」(요 6:67, 68)라 하였습니다.

영적 의의

생명의 빛에 대한 선교는 빛 별과하늘리의 고기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통반합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였으나 복음의 영적 의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별을 볼고 막았으므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 풍을 불어 보시며 제가 이미 인용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열 풍을 데리고 근처의 산으로 가셔서 『인자들 누
구라고 하느냐?'(이 문장의 문법적 잘못은 천여년동안 그 리고 시행되지 않았다.) 벌 둔은 영의 감동을 마음에 새기 면서 대담하기를 "여자는 침해 요한 더라는 일라이스 어 림이 억제되지 않으면 수지와 피리므로 하느니라'
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는 나를 누구하나요' 하시자
성균한 비드로의 움직이가 나서 왔으셨습니다. 이상에는 주님이 암호 풀이 나서라 침해되었던 비드로는 '주님 오드리
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나이다.'라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이렇게 침착한 말씀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 사나와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비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으나,)
여가 목이 있소하나. 이를 네게 알게 하여 이는 허물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뇨.'(마 16:13~17)

새로운 감동을 필요로 함
현재 세계는 역사의 어느 때 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라는 감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주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고 그를 따르기 위
해 헌신적으로 우리의 영이 헌신적으로 헌신, 해법인것
있습니다. 사나바에 육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뢰는 영
의 영호한 분생에 폐쇄하게 되는 사람이 streamline 아닐
가요? 주세우께서 때 변화당하시는 날 지녀의 말씀하신서를
"영생은 곧 유휴하지성, 착하느냐와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것이니요."(요 17:2) 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리를 할 수 있었음까?
"사나바 하나님이 드릴을 해하려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해주겠어라."
(요 17:1)
지혜는 노력 끝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한 것은 무모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한 것은 우리의 과, 지혜의
힘, 영적인 힘을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에 나에게 주신 것이요 갖추라 그러면 절
장을 하켜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것이느
라(마 7:7)
이러한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구하여야 하고 문을 두드
려야함니다.
이 때때로 이리한 진리를 더욱 알려는 곳은 결기의 없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사랑하는 이, 우리의 이웃에 해낼
수 없는입니다. 속에 있는 영은 진리가 빛나는 세상에 존
재한다고 진정합니다. 결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싶으시
게 기도하고, 의심하되, 마음을 풀어가며 수행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강하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동을 드리겠습니까?
미사가 제5장에 보면 예수가 예언자로 예의지에 임해
인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이 계시
를 받은 자들이 밤에 양을 지킬 때 그 예언을 마음에 간
직하고 있었고, 모든 유가자 간직하고 있던 것같이 그들의
예언자에 속히 오라는 의상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사들이 이제 하나하나로 옮가니목자가 서로 말하며 이
제 빛들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실 바 이 이루
여지길 희망하."(누가 2:15)
목자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지 모르겠이나.'고 말하지
하였고,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니지 모르지.'고도 말하지
하였으나,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실 바 이 이루여진
일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서 아들들을 보냈고, 천사가 기쁨의 축, 주의 괴짜가서 초고마한 유대
영에서 가장 수난한 곳에 이기로 오셨으리라 염적에서
주께 달라는 확신은 목자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이 확
신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은 과일 그리스도께서
나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이서 천
사를 거쳐 하늘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백하고 있으나
같은 확신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셨습니까? 모든 의심은 사
라며, 현재에서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근심은 모두 사라
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갑작히 하는 바인 것입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주의 탄생을 축하할 때 저는 주
님의 교훈과 생활이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필
요한 것이 되고, 인류의 행복에 더욱 적절한 것이 되기를
바라합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생활한 결과로 인간성이 원생
되는 것을 저리처럼ランス 많은 밤은 일리가 없습니다.
저는 신을 다하여 인간의 원성을 표본으로 육신으
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구제주주시고 구복주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주님 나의 구복주요,
구제주요, 주로 받아 들이는 동치에 그의 복음은 구복주
의 계획으로서 인간의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원성을 들
로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인류의
성장, 발전, 행복에 적절하지 않은 원칙은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교훈 하나하나는 홀로 진정한 생활 철
학이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입니다.

세계에 음절을 잃어버리고 낫심하게 하는 요소가 가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한 해를 통틀어 가장
기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범의
자주 할 어울리기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해들닙니다. 그는
우리의 주요, 구제주시며, 그분이 탄생하신 때는 '이
명에 서는 기름히한 은료 자들 중에 평화라도.'는 말씀이 선
포 되었던 것입니다.(누가 2:14)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평화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어
려움과 기도와 친교로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자와 전염병을 회복하고,
몸을 앓는 자를 치료하되, 외로움을 주는 그 마음에
적절한 말을하며, 평온한 자는 안식을 얻으니, 즐거운 자는
쾌활하게 되어, 의심하는 자는 확신을 얻게 되며, 약한
자, 강인한 자는 평화하계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기적

존 롱든 장로 (12 사도복자)

이제 막 성탄절 특별 수당을 지금 받은 젊은 여가가 친구와 함께 물건을 사려고 시내 쇼핑가에 갔습니다. 그들이 상점에 갔을 때 그 여사는 조그만한 사내 아이가 그 근발에 서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무엇이든 같지 않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 후 그 여가가 상점을 다 돌아보고 다시 하자 그때까지도 그 아이는 귀기에 우뚝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는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너, 얼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니?"
"아니요, 저의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저런, 출지 않으니?"
그 조그만한 아이는 그 여자의 눈을 둘러싸며 찾아보던 습니다.
"지금은 아줌마가 나에게 말할 것이 못eworthy."
그동안 스텐renom 말했습니다.
그 여사는 아이에게서 긴 인상을 받았습니다.
"너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여기 좀 서있겠니?"
그 여사는 자급의 손을 그 아이 어깨에 올려놓고서
"자, 너 어디 가지 않겠냐고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여사는 상점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줄 따뜻한 옷을 사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재요?"
"아니, 하지 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지."
"아니, 저는 아줌마가 물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유에서 나신 어린 예수와 관계가...
우리가 아주 예민한 광범위성을 발견하여
측정한다면 그 광도의 맑기가 가장 높은 때
좋은 생각, 가장 깊은 감정, 가장 좋은 정신을
을 성장하게 합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 여가가 물질적인 선물을 주었을 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황홀은
물질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만의 단지나 나 사이에서 출발하
는 마음과 마음이 교차될 때만 이득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
은 예수를 발현자, 파라소로, 예수님으로, 혹은 정신적으
로 존경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면 그의 현재는 어
디서 나신 것인지? 그것은 인간, 즉 영적으로 영혼에
어서 발난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가지고 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 14 : 27) 고 하셨습니다.

그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
어주셔서 이타적인 성령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 3 : 16)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는 것은 물질만은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히 반다이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사를 못하지 않고, 여
러분이 친구를 잃으셨을 때 어떻게 외치는지에 대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이러한 일을 즐겨보시지 않으
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잘 지낼 수 있습니
d.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그것을 실행
할 수 있다면 별 편안하게 실행할 수 없겠습니까?」

평화를 가져 오는 공식
평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공식은 새로운 것을 발견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옛 것의 재발견에 있다고 하겠습
나요. 그것은 평화와 진보가 시작한 곳이로부터 시작을
는 제한 밖의 번 미래의 역사를 예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는 2천년 전에 간단한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이 이름을 몸
과 같이 사랑하라.」(누가 10 : 27)

예수는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서이 오는 것은 도착하였고 죽이고 영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충성히
언제 하러는 것이다.」(요한 10 : 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후에 피해하는 시대에 태어 나
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는 죽은
후의 피해가 되어 돌아 가셨습니다. 그러나도 살아 계
셨을 동안에 사랑의 복음을 이었고 화해하는 복음을 가
르치셨으며 그는 조화, 평화, 우애, 기쁨의 화신이었습
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이 없이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반환하는 자도 평화를 얻을 수 있
을까요?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네도 오라, 내가 너
희를 석기 하리라. 나의 마음이 기다리고 결속하니 나의 명
예를 본고 내게 비무라. 그런데 너희 마음이 젖을 언으러니
이는 내 명에는 쌍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마태 11 : 28 ~ 30)

이러한 모든 말씀이 이 세상의 평화와 간절한 사랑을 해결
하는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성탄절의 복음에서
나왔을까요?

성탄절의 신기한 힘

월든트 에이, 리처슨은 이 사실을 「마술적인 정신」이라
는 제목으로 매력적인 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기 스웨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통해 나날의 크리스마스의 마술은 우리들의 찬양
시 조용하나,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이상을
고치거나 감정을 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
있는 전기의 것과 같이 성탄절은 사람의 삶의 전환 농력의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게된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것으로 사람들 - 남녀, 어린이 얼굴의 광도를
는 크리스마스 때 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크리스마스 때 발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

윌프드 에이. 피터슨

생활 수도 있고 또한 밝은 세상에서 생활 수도 있을
나.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일년 내내 마음 속에 선의 기쁨, 친교의 추억
을 항상 채워 도그마라 불혹이 악, 끝까지, 종으로 끌려
싸인 어둠 속을 빛게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에 성탄
절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가 해서든지 영의 전
기를 채는 스LastError를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잔시동안
희망, 사랑, 믿음, 친절, 평화로서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
나.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영적 전기의 사용이 가능한
데 영의 추억이나 심의 음울을 채는 후회를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전기들과 힘을 주는 희생과 동력은 일년 내
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좋은 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희생 관의 일원입니다. 그것은
희생하는 사람의 정신에 빛을 비추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줍
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정신을 일년 내내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스-LAST는 우리의 가슴 속에

비 유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비유 하나를 인용하였습
니다. 비유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님(propertyName)'. 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라이롤그에 있는 키담한 교회장 올게 연주
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그가 올게에 임하여 올게를
연주하고 있는데 어떤 날 선 사람이 들어와 그 사람 위에
항상 서 있던 거의 반시간이나 후에

'저에게 올게 좀 체계해주시겠습니까?'라고 말을 했지만
그 올게 연주자는 거절했습니다. 그 날 선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다시 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올게 연주자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날 선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잔시 동안 올게 전반을
처차보고 있다가 올게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키담한 올게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을 좌우로
파이프를 통해서 내 보냈습니다. 그 음악은 교회안에 가
득히 물리 떠오르며 전장 구석구석에 깔려 퍼졌습니다.
당자는 천사도 계울 것 같았으며 교회의 돌아가기까지
도 기뻐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올게 연주자는 잠자 놓
았습니다. 그리고 날선 사람의 어깨를 잡어서 찬양하면서

영사님은 누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라잡던 음악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해리스 벨러스폰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날선 연주자는 '제가 잘못 알아 보
고 올게 치는 것을 거절할까 생각했죠.'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중에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일관되게 고려하는 음
악가 벨러스폰이 여러분의 음악을 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의 위대한 정신을 마음 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활이 하늘 나라의 평온을 누리는 생활
로 바쳐질 것입니다.

성탄절의 인사

주후 1513년,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 전에 가득된 크리
스마스 인사를 인용합니다. 프라치소바니가 쓴 그리스도
마스 벨러스폰의 제가 연주하는 것을 대해 해르몬도
의 위대한 경질을 마음 속에 간직하십시오. 하늘을 밝하십
시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평화는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
습니다.

평화를 누리시죠.

이 세상의 여우움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달 할 수 있는 거리에 기쁨
이 있습니다.

기뻐하시시요.

그리고 이런 성탄절에는 영원으로 여러분을 위한 날이
따라서 여우움이 영원 사라지기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도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참세들이 참문 밖에 서 있는 펄벅나무에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참 못 이루는 것임박이 지나가 바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와 가슴 속은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으로 꽃 베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인 마이클이 집에 있던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녁에 진화로 바뀌어 병원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강단히 설명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식을 끝마치 직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아들 루버리는 모자와 카👨‍👦 주인 씨 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화를요, 부디 많이 마시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시고, 출혈을 먹추기 위해 곧 네수술을 해야될것입니다. 출혈을 멈추 수 있다면 가망 있습니다. 그저 먹으려면, 의사의 말씀을 얻으시고, 그를 영구 마을 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는 시간 동안 대기실에 앉아 야오십시오.

갑자기 예기치도 없었던 혼란이 초조한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문을 박차고 헤드지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토버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자니 해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루버트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다쳤어요?」하며, 몸이 쌓여 있는 표정으로 집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루버트의 심한 부상에 대해 아내 설명 하려고했지만 음성이 떨리면서 호느렸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아내를 떠나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담소조로 되자 엘렌은 18년전 8월 어느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날은 루버트가 바로 이 병원에서 출생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시처럼 웃었고, 아주 조금만한 콧수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렌과 테리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그가 힘들며 비술거리며 크리스마스 라인을 달고서 세상을 지켜버리고, 집안 끝나는 무려움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 이래 세 다름 바지와 콧 수술사해를 입고서 전희히 강당했습니다.

국민학교 때의 생활을 세근한 삶을 마련해 주었고, 가구가 시절에는 흔히 빌은 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자녀가 영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웃사람들이 의회로서 엘렌은 루버트를 시켜서 집에서 음식을 맡아 보내주었고, 돌아올 때 루버트는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여명이 자녀가 자녀의 가정환경이 루버트의 것과 매우 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하는 사고방식과 표정이 엘렌의 가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높이뛰며 인사가 많았고. 그들의 생활 어느 한구석에서도 신경전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엘렌은 루버트가 자니와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여인이 좋아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니가 루버트보다 3살 위이기 때문에 자니는 보다 성숙했습니다. 엘렌의 눈에는 종종 웃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자니는 루버트와 함께 초등학교에 다가서서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두 아이는 초등학교에서 점까지 경계를 했습니다. 점에 도착할 때까지 자니가 계속 앞서 했습니다. 그리고 반달수 루버트는 문 뒤에 부끄러운 듯이 서있었는데, 그는 우아스럽게 나의 손목을 잡고 마루에 끌고 돌아가서 「여머니 자니에게 기도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일을 도와 주셔고 로버트는 덕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경련성이 흐를지를 위해서 특별히 쓰는 일이 있어. 즉 당신 당신으로 쓰지,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우리가 축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를 드리는 것이야. 베가 축복받은 것을 베 자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대."

"모든 착한 일을 다 축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함께 기도문을 내놓끔 했습니다. 친구도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로버트는 초등학교로부터 돌아와서 평상

시간이 위험하지도 않았으며 자녀가 있더니나만 설렘 은요. '로버트야 자녀가 기도를 잘 했니?'라고 엘렌은 문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못 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그는 그의 방으로 가 버렸습니다.

엘렌은 소중히 보이던 그가 갑작스런 소년처럼 뺨이 둔해진 듯 상처를 닦는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수요일 초등학교에서 고통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를 도와주어야지.'

엘렌은 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들에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녀야, 걱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아니, 조금은 정작해요."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답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올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달아요.

그래, 기도는 잘 일뿐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는것이야. '기도는 영혼의 소방'이라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들어봤지?'라고 찬송가 몇 줄을 흥얼거렸습니다.

"앞서, 초등학교에서 부모들이 있어요. 중요한

나는 자녀가 '가봐야 되겠어.'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목을 지지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이 휘하되어 웃음으로 숨그

마저 내واجب니다.
남겨 놓았겠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커다란 배고기에까지 신권을 사용하였어. 마이엘은 염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있는 신권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라고 자녀가 질문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지?"

"볼본이죠.

"자, 그러면 이야기하자. 1829년에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 스미스에게 교회를 창설하라 하시고, 자녀가 예상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신권은 예언자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받다는 말이에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 또는 올리버 카우드리로부터의, 그들은 나 함께 신권을 받았던 거요.

마이엘은 어릴 시절이 신권과 신권의 잔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권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에 기념했다고.

자녀가 제가 일장간 얼마나 그는 주일학교 성찬을 축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가 거절하였을 때 그의 제자 청원의 고문이 그것은 간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즉 기도로써 쓰어진 기도가 성찬식에 있는 것들을 잃으면 된다고 하여 마치 못해 승락했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어린 제자가 뱉에 축복을 드리고 나자 자녀가 뱉에 축복하는 차례였어요.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또 엠히었으나 또 다시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잔뜩 기도문을 다시 작성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안은 진정한 공기라도 같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 자녀는 영정무가 된 은광로 벌이 일어나서 그 자녀를 땅아버려요. 다른 제자가 제자께 그 자녀에게 안시심 뱉에 축복을 드렸어요. 여러 주일이 지났을 때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자녀는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나는 자녀가 고통스럽게 출결할 때 뭐 사람이 될 것인 것을 보고 놀랐어요. 두 번째로 그가 여전히 떠오르고 있네요. 부모님의 주차에 이렇게 떠오르는지. 아닙니다. 자녀는 대학생들에서도 그와,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그는 로버트에게 그가 절단한 제사를 하고 있는 소녀를 만난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말하기를 "로버트, 여자야, 여자야, 그리고 교회 회원이다. 우리가 신권에 걸훈을 할 때 너의 탐정이 함께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자녀는 종교학과를 학부로 하여 축복해 주시어요.

로버트와 함께 마이엘은 자녀가 그의 신부와 함께 신권으로 같이 갔습니다. 로버트는 그들이 제달에 부활과 죽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로버트가 여전히 그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약하던 말이 적용 됐습니다.

× × ×

한 끼들이 들어오자 엘렌은 글자색의 펜으로 밤하늘로

유나. 머리로 봉래로 감고 풀래 안하는 로버트의 모습을 보며 몸짓리치는 광산이 다시 얼어붙을 것같다. 엘렌은 힘에 압도되어 남편을 바라보고, 다음과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녀의 코끝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들이 멍설로 굽히 뻗어가고 문은 헛バリ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는 씨앗을 심은 두 사람이 빨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에 간호원이 들어갔습니다.

전화의 대천의 간호박사가 아직 수술 중이라고 하였는데, 간호박사는 아직 수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간호원이 방으로 들어가자 대천도 카다리고 있는 마이엘, 엘렌, 자녀를 나가두고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후 스노우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들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어옵니다. 엘렌과 자녀들이 검을 받아들이고 엘렌은 엘렌은 보니의 눈으로 "당신의 아들의 가망이 없겠어요. 그 자녀를 헤들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림린 의사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베가 이미 늪은 것 같은데 뻗어 토분입니다.

"그 전 부원이요. 엘렌은 흐느끼게 웃었습니다.

그 매가 이대로 되어도 좋을까?라고 한발은 자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자녀가 어색하게 씨앗과 밤에 부활을 꾸몄습니다.

자녀의 기도는 로버트가 자녀를 이끌어주고 자녀의 생활 속에 점차로 스며든 선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명격히 그 리고 의미있게 하루하루를 부여 주셔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광산으로 그는 자녀의 편의를 구하기 위하여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끝으로 마실을 아버지의 꼬리로 행아서요. 하지만 아버지 아버지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 Bakanlığı. 문은 열리셨습니다. 아직까지 수수께운 은숭이 있온느는 크리스천박사였습니다. 스노우박사가 방금 나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신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크리스천박사는 부드럽게 맡을 했습니다. 눈속 한 손자로 의사의 거의 기계적으로 손가락을 환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제자와, 하지만 부드럽게 시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그 소녀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 번 작전을 했습니다. 그는 당황해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렌 방방간에 진작 수술을 지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아직도 아우들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의사는 간호박사 간호원에게 "산소호흡을 다시 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렌은 "어머니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라고 말하던 로버트의 말이 다시 들려오는듯 했습니다.
진리를 찾은

소년

하젤 더블유. 루이스

이여자 요셉 스페스의 어린 시절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내력에 쓰여 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일상생활에서 보듯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드리 요셉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점점 커가는 가정일탈 때문에 바빠 일몰해야 했으므로 요셉의 어머니 루시 백 스페스는 자소한 일을 돌봄 거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스페스까지 요셉의 어린 시절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두려워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비록 가정생활은 어려움을 받았지만 아이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서로 서로 밀으며 촉진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그의 일생의 생활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1865년 12월 23일 어느 추운 겨울날 빅토리아 월요군 사돈 마을에서 조그마한 사내 아기가 스페스의 가정에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스페스는 갖난 아기를 봐도 그녀의 차녀들 일곱 살 된 아린, 다섯 살 된 하이랄 그리고 이제 두살의 소프로니아를 가까이 봉돌려서 탄생한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요셉이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아기 요셉의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가 지구상에 마법에 있을 동안에 하게 될 놀라운 일을 하여도 놀랐던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사돈에 있을 동안 요셉의 아버지는 농장을 빌리 어린 동안 경영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빅토리아 뉴햄프셔의 경제가 되는 지방의 여러 마을로 거주 이사를 내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동안 그 가정은 사돈에서 빌려 빌리지로 돌아가서 로이알턴으로 이사를 했고 다시 뉴햄프셔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희 중에 누군가 저히가 부탁하도 모른 사람들에게 헌주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구하라.

뜻하지 않았던 불문

요셉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레바논으로 올길 때까지 스페스 가정에는 사무엘이 출생했고 미르베임은 레바논 10일 만에 죽었으며, 또 원리임이 떨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이 레바논으로 이사했을 때는 젊은 사람이 매우 떠났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그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정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번영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토를 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두배로 노력했습니다. 요셉의 능은 여동생인 케러린이 얼마 후에 레바논에서 탄생했습니다.

스미스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이랄은 하느님의 아카데미에 다녔고 다른 아이들은 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문을 쓰며, 그리고 간단한 수학을 배웠습니다. 스페스의 가정이 젊은이 두려움 가정이었고 저녁에는 신경을 차례로 돌아가며 잔했습니다.

감자가 뜨지 않았던 불행도 또다시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 때 감염물이 대단히 높은 발진저호가 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프로니아가 박았고, 다음 하이랄 학교에서 병을 올렸고, 다음은 아린이 약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들은 모두 차례로 이 우사운 병에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 주실겁니다

8살 된 요셉은 억이 줄 내리는 것을 같았으나 얼마 후 어깨가 몸시 아파서 신음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깨를 다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사의 그 고동은 어깨 관절이
다쳐서 오는 아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권했던 사
용자의 망을 받아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
며, 수주일 후까지도 그의 이명은 꽤 오로인 고통을 주
었습니다. 그 아픔은 그의 둘로 올아왔고 다음은 다타
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픔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저기 지을 것입니다.

수주일 후에 의사가 와서 두치해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은 고용을 없애주지 못한 수술한 것이 낳자 그 아
사는 너무나 무거워 현재의 몇 사람의 외아이를 놓습니다.
전철이 끝난 후 그들은 다리를 절단수술이 요심의 생
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어버
니 스미스는 묵묵히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픈 땅을 절단하지 않고 수술을 해서 그의 다리가 명신
이 되지 않도록해 주기를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에
서 의사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오늘날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취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은 요심을
첨단에 묻어 닥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심은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한 일을 당신들에게 발자국 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침대 위에 놓아서 묻어질 것을 불렀습니다. 그
러런 나가 데 수술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의 사과 어머니가 예측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어머니를 루에서 나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요심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제시 절이겠느냐고 저에게 약속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용을 이겨낼 수 있
을 것입니다.”

요심은 이 고용을 수술로부터 차차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영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는 동안 아저씨 제스 스미스와
남제 태우레스처의 삶으로 갈자. 그러한 마음은 바
 닦고 받아요 해요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친구는 회복되었고 그의 다리는 편안히 자랐습니다.
그가 떨어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약간 질했을 뿐이었습
니다.

팔마이라로

모든 가족의 걱정이 다시 회복된 후에 요심의 가정은
코퍼니키트 장을 다시 전네버폰트의 농장으로 이사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가정은 비록 작은 농장을 빌립니다.
다만, 요심의 아버지는 2년 동안 농사에 집중했습니다. 3년
에 되는 해에도 농사는 쉽게 추위로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요심의 아버지는 좋은 농장에 있다는 농주로 가려고
마음을 머물렀습니다. 만약 상품만한다면 그는 자기의 부인과

새로 탄생된 아기는 그들에게 성단 선물이었다.

여러 차례를 부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아
기 도 할로가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스미스와 아이들은 팔마이라로 마차 여행을 떠
남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도 걱정 없이
떠남 준비를 뒤에서 앞까지 떠나 화를 들여
담았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심의 아버지는 그들을 오라고 하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사회비와 생명행

요심의 양천이 농주로 이사를 할 때 그의 나이는 10
살이었습니다. 농주에서 처음 2년 동안 그의 양천은 팔마
이라에 있는 주택지 2187 번지의 집을 빌립니다.
그들이 매우 자란 농장에서 돌을 떠기 위해서 가
족 전원은 즉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인은 여간다는 만들기 위해서 선생으로 일하는 목수
를을 일을 했습니다. 어려가 임을 할 하기는 어지
스미스는 남의의 자녀가 되지 않으나, 사회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는 오병음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로와 화기등을 세
웠습니다.

그는 농부들을 도와서 농작물을 거두어들었습니다. 그
는 어떤 일에는 하리람과 어린 요심을 데리고 가서 자기
를 온도를 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어머니 스미스
는 자꾸만을 차리며 특히 토요일과 휴일에는 손님이 많
이 오는 음료수 장사를 했습니다. 동네의 아이들은 요심
의 어머니가 만든 생강과자와 빵을 찰리로 맛있게 먹었습
니다. 소프로니아는 출결 revenge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머니가 고관에서 천한 의자 카바와 유포를 팔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아이들은 말마이라에 있는 통나무 지은 조그만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요셉의 학교생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거기에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적어도 3명의 학생을 배웠다는 것은 확실히 1818년 1월 31일자로 된 그의 자서전에서 서술하고 있던 수학의 첫걸음이 그 학기의 영원한, 영어로 그 조교사로 적었습니다.

질문 잘하는 소년

요셉의 14세 때 생일이 지난지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가 고대교과( eskimo, 감리교, 장로교)의 스키돌사들이 게중을 시키기 위해서 말마이라 부근에 들어왔습니다. 스미스 가정과 이웃인 판체스터 학교에서 열린 학교에 참석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마이라에서 개최하고 있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스미스가정은 항상 성경을 읽는 친교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었지만 어느 교회에도 소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 루시 스미스, 소프리나, 하이런, 사벨은 장로교파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소년, 건강을 추구하는 어린 요셉은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어버지와 할장은 장로교회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캐나다의 개혁목사의 설교에 대한 흥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그 장로교의 설교는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의 말을 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ynos

그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어머니 스미스는 아들이 없이 갔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빈소로 돌아온 운동가는 빈소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왜 그렇게 이상적인 출정을 하는가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장로교에 진심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날부터요 신앙의 깊은 깊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참으로 보았으며 빈소의 자녀가 요셉에게 전달한 교회는 아무래도 또다른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헬리안이 결혼을 한 반면, 어떤 사람이 요셉의 건강에 의심을 해본적이 있나요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우리는 모두 그가 말한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믿었습니다. 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믿었을까요? 그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말을 의심을 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그는 진심이고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말을 믿었으며 믿음으로 해서 그들 부모가 흥분받던 사실은 그가 참으로 진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그의 가족은 그림영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
심

그리스도가 나서기 800여년 전에 예언자 요셉은 우리들의 세대는 많은 문제를 바랄 것이라고 말하시던 보았습니다. 그는 최악이 반작할 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온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임장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며, 심판 은혜기에 사람이 말하며, 심판 은혜기에 여호와의 백야 가까움이로다」<요셉 3:14>

우리는 신화의 곁까지는 있으므로 요셉의 예언은 확실히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장면 문제는 이 세상의 급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갈길을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추종하겠단 생각은 그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용감하고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억속을 굳게 하는 자가 요구 됩니다.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시길 「나와 함께 아닌 자는 나를 받으는 자요」 (마리복음 12:30) 우리는 가인과 유타 혹은 해변을 붙 붙에 이 말씀의 진실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알고 있었으나, 하지만 그들은 신상의 곁까지는 서서 하나님의 추종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옳은 일을 할 것을 자기 스스로 계단하고 약속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길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없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갑정한 하나님의 복음안에서 빛나는 일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회에 있어서, 부부적으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다고 말한 것이라면, 당신의 억속을 고결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 들여질 수 없습니다. 말씀, 소, 부도덕적인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이 나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은 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나의 행동을 하지 않고 평화와 권위로서 교회를 나으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거하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사 탕하고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길임으로 선정 다소의 사물을 부로 삼아서 불 수 있습니다. 사물은 막론하고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옳다고 생각되며 그 일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 는 분이었습니다. 의심없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이로운 나라를 임박하는 것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의 열성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사람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강장한 말씀을 그의 곁에 선정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 제자들 뿐 하여 연합히 위험과 삶이 동등하며 내세사항 에게서」<사도행전 9:1>

미륵 사물의 행동이 그랬던 일이라 할더라도 하나님의 사물은 올바른 이유로 행동한
다만 그의 열심을 꽤 충격적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율이 기독교인들의 익숙한 욕구에 저항할 정신 속에서 사율에게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사율에게 나타나서 「사율아, 사율아. 비가 여겨져 나와 집박하느냐 하시기니 대답하리샤하되 이기사의 나무는 나비 집박하는 나무이니 주저하거나 불편하신이하사유령이 사율은 주어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시키어시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5-6) 그는 곧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율의 결심은 그를 위태한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모하기에 빠진 것이 그 결심이 얼마나 완벽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비가 우리 주의 주변의 모든 것을 전부 저를 훼손한 나무 부러워하게 망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다」(참조 1장 7-8절)
오늘날의 세계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학과 사랑과 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스스로를 바칠 사람을 주하고 있습니다.

사율을 부르신 주님의 말씀은 여자나 남자나 스스로 결심하며, 일단 결심을 하면 후에는 그 결심에 충분할지 얼마나 비리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첫의의 약속한 필요성은 나한 사두목의 한 구절에서도 신념되고 있습니다 「내가 비행을 아무리 비가 차지도 아니하고 마음에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마음든지 하기로 하십니다. 비가 이같이 미치지하여 마음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나 이업에서 너를 풀어내치리라」(예수록 3:15-16)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어느 정도나 도달하였을까요?

그곳에 도달하면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으로서 충분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충분하고 적합한 근거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혹은 거기에 부가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법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한 가까이 지냈습니까. 베드로는 증기를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주님이시 그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신뢰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과 같이 지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몹고기 잡으셔야하라 하며 저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시 베에 온 overwhel쳐 이 밖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는데」(요한복음 21:3)

아직 베드로는 성령의 제사들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서, 강요에서, 거리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수 있는데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신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신懸적인 결의는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도 사업을 동행하여 명확히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운데서 성령의 제사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의식적으로 열심히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살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위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동적이고, 고립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같이 의식적으로 신숙고하신 곁에 결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율의 요구합선 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체계시키실 일은 무엇이고나」그리고 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수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전 젊음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의해서 온바르게 말할 때나 그는 항상 자기가 한 말을 행동하여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꾸 찬 것을 맡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편이나 나는 그러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위해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석의 분정에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한 것 같이 「오직 나와 내 믿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굶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이날의 영원이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는 크리스마스 화랑을 방문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방에 있는 그림을 보며 깊은 감정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방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만 열어 놓으므로 어떠한 그림이자마자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의 그림들은 가장 좋은 것이여야만 했습니다. 그저 가 그린 것은 만으로는 안이었습니다. 이방의 그림은 보는 것 못지않게 감동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좋은 기술보다는 보다 더 좋은 감정을 물려 올릴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사랑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 잘 된 그림 이야! 나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를 만나봤으니, 그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보다는 그림 가까이 가서 손자발로 이림 크리스마스에 한 번 잘 수 있었으면, ,', 하는 생각이 나게하는 그림 말입니다.
영원이의 방에 중앙에 있는 벽위에 앞서 조용히 각각의 그림을 차례로 열심히 드려보면서 그 그림이 무엇을 듣고 있는가 골똘히 생각 했습니다. 그는 서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시간을 빈하게 환영에 왔습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단지 한 사람만이 오늘 아침 그와 함께 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옷 판 그림들을 줄어 보았으며 새 그림 하나를 마지막에 보이고 남겨 두었습니다. 그 그림들 하나 하나는 그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것은 그를 하여금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것을 따라보게 하는 맛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그는 그것을 보고 난 후 아주 이상 스러운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럿한 장소에서도 그 그림은 전시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림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광경은 마르간전에 있는 거룩한 가족 그림인 이 섬치였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목동 중의 한 사람을 더 이상 발표해 있어서 맘을 풀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며 편안한 마음이 금기치였습니다. 이 상상은 탑박하 여 기를 천천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더욱 느낄 것은 무언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를 잡고 있는 부드럽고 하얀 양털로 둥근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복잡한 운동가는 놀라움으로 자비로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하여, 바로 이 어린아기는 자라서 이 세상의 구세주 나의 국민의 임금이 되실 분이야."
바로 그 목동이 그들 그 그림으로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가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는 조그마한 목동의 눈을 품어지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 대한 무엇이 거기에 있었을까?
그는, 이 어린아기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자, 그의 손은 그 목동의 발품치에 닿았습니다. 영원은 꼭대리 뱃 벌쳤던 그의 손을 잔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구경하러온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펼쳤습니다. 그 그림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럿한 장소에서도 그 그림은 전시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한 번 보고 영원을 보았습니다.
'예, 그림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빛 당신과 같이도 생겼고 나 같이도 생겼습니다.'
'나는 소년이 예수에게 그의 양을 주었는데 이성스럽습니다.
그가 그것을 먹마나 죽 거지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거기에 만족 있었다면 그 양을 어린 예수에게 주었음을 놓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은 여하로 모가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정신적 으로 가난하다.」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했 으나. 「나가가 잘어 하는 사람을 너는 알고있니?」 「꽃발영감」 우리가 그의 시들은 꽃발 보아도 그는 자체 아버지야.」
「그가 아주 가지개 꽃놀을 감시하고 있고 아주 정신을 들어서 꽃놀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꽃들은 희생을 잃는가봐. 그는 가족도 없고 좋은 친구도 거의 없이.」 잠시 침묵이 넘어. 그리고나서 어 머니는 서.bootstrapcdn omitted.」『애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는 무엇을 가장 맛고 싶니?』 『저 라디오요.』
「그것은 나무 위에 붙은색 끈으로 묶은 푸른 소포란에 있어야.「오! 하지만 어머니 저는 가지고 사서야.」」 「너는 목동이 양세끼를 사랐다고 생각하나? 그가 그 양세끼를 예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니?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볼라.」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눈을 둘러지켜 저르고 잠시 안이 주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영원은 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키야 가까이 자키의 얼굴을 찾아 떠 있는 목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되었습니다. 그 목동이 세키야를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과 성당에서 있었던 것은 남자와 자기 뒷배로 생각했습니다. 나가 막아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세키야를 그들에게 드렸을 테야. 그는 또한 꽃발 영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의 마음에 자니 가기만 해도 항상 눈길을 쫓아가며 들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는 그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까지 빗바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준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묻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 까지 아무 말 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너지를 먹고 단순히 앉아서 잔디에 있는 그의 쌍화에 들어가서 잔바를 잡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걸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와서 그는 소포를 하나 잡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 짜기 점을 나갔습니다.
「왜 오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보도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서야 안심을 했습니다. 그는 한발자국 정중히 들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어머니, 어머니, 꽃발 노인은 충분한 분이에요.」 그는 서쪽에 들어가서 그의 잔바를 잡아 단정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는 어머니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그의 눈에 맞이 되면서, 그의 말소리에 어떤 감성을 가지고서 말했습니다.「어머니, 막파 내가 원한 크리스마스에 거기 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이 내 세키야를 떠올리게よかった.」
행복한 모험

루실 방순 젠킨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찾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축적음을 안겨주는 것은 주일학교를 망설이기에, 조용한 성기를 가졌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교사가 어릴 때에는 잘못된 아이들로서 그럴지 않아요. 교사가 곧바로 시간을 흐르게 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절의 어린이에게 영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가 어린이에 대해 말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아이들은 사랑합니다. 그들이 어린이들은 어른에게 처럼 사랑, 친절, 존중, 우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갑자기 예 хр니다. 교사가 조용한 성기를 가졌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교사가 어릴 때에는 잘못된 아이들로서 그럴지 않아요. 교사가 곧바로 시간을 흐르게 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절의 어린이에게 영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는 좋은 영향력을 가속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인생잡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교사는 아이들을 좋아 해야지 아이들을 두려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그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사를 맡받하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교사에게 불편한 말을 했다면 심지어 구는 아이들이 교사의 불확실성과 불안, 걱정, 희망을 그 점에 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조용하고, 일정하고, 진지하더라도 조금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는 쉽게 할 수 있게 개개의 어린이들에게 각자 설명을 한다면, 그 교사는 안전하긴 좋은 환경을 장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시간에 아이들은 얼마나 환영을 받누니까?

교사는 문에서 아이들을 받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장소에 물을 구부려야 합니다. 만약 그가 구부릴 수 없다면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로 교사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 보아야 한다.

아이들의 관심이 그들의 요구보다 더 교사에게 끌려야 만 되지만. 교사는 아이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그를 친구처럼 대해야 한다면 그 아이는 공과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정도 드르그를 대해왔습니까? 친절한 것을 보이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어느 선생님은 항상 웃음을 되고, 보다 잘 배워주며 ‘나는 박영옥 저예요! 내 이름은 러지.’ 이렇게 친절히 말하면 그 아이는 항상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마음 속으로 나설어 나는 네 선생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방이 하나이자. 잊어, 아니, 우리 그 방을 좀 봐요? 이런 경우에 교사가 자리를 잡아 앉는다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 아이이 후의 좋은 관계를 이어 비기가 짧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함께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이가 양마의 손은 잡으며 교사의 손을 잡기로 한다면 ‘엄마하고 함께 들어가는 것치게요?’ (양심 어린아이와 말하듯이 그 아이에게 자기의 보무보 다 철저한 위치에 있게 해야만 됩니다.)

마음 속으로 끌어내는 이름표를 정밀한 태그로 아이를 메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표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며, 선생이 아이의 이름을 읽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 16 —
(아이와 익숙해지기전에 교사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아이를 하급 선생님과 자리를 정한 사람으로 알아준다고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어른보다 더 할 떼 흥미 냈다. 교사가 좋석 역할에 잘 풀리는 것처럼 사람을 하면 그들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일 좋아 하는 자리에 앉도록 하시지요. 이제 그 이름표는 그대로 하여 빠른 빠른 것을 보기에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조금만 위의 화어를 높으셔 봅시다.

아이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아이들은 감각을 통해서 꼭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과 같 은 영상을 가지고 합니다. 헬렌 헨리스의 모습을 배우는 때 이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다시 볼 수 있게 합니다. 헬렌의 선생님을 설리방은 헬렌으로 하여금 물 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쓰게 해서 헬렌에게 물이라는 단 어를 알게끔 도와쳤습니다. 헬렌은 그가 겪었던 경 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물담이의 항복에 물려 우물로 통하는 길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물을 쏟는 것입니다. 나 의 선생님은 내 손을 물이 날아 오는 향기로 과하게 배웠습니다. 나의 곤한 물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바다에 몰아내는 것과 같이 타고 나가게 됩니다. 나는 그의 낙석이 물이 되어내집니다. 나의 손이 끝없이 흘러가는데 나는 이런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먹으면 후에 있는 놀이동안 함께 어떤 것이 물을 의미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와 같이 했습니다.」

헬렌 헨리스는 다섯 살의 향기 중에서 두개를 대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우는 것을 뒤로 부르 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첫번째 배우는 것은 알지 못했겠던 것을 배 우는 어린 아이들에게 알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교사는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공급을 내고 있는 것을 훌륭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알아야 합니다. 교사는 공급에 있는 것을 이어 띄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헬렌 헨리스 여자가 「은StartDate는S」이라는 단어의 뜻을 임아보겠습니다. 이 교사는 그들이 처음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자기에게서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 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성공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로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여름에 나를 믿은 어린이들을 기르는 책 「우리는 소에게 교사들을 느끼는」이라는 책을 출출한 저자는 소 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을 어린이들에게 맡겼습니다. 크게 괴로울 기절 어린이들은 체발리 흥미를 가지며 확실한 뜻을 알게 됩니다. 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배우는 것에 대한 기쁨은 그들이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세밀하게 매달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매달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뒤집어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답은 기꺼이 그들에게 그들이 자신에 대한 좋은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광을 자기의 지식을 높여준 것입니다.

교사가 이야기 시간을 펼치게 만드는 방법

교사가 이야기를 할 때 교사는 좋은 시점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즉 실례적이고, 색깔이 있고, 간단하고, 깊은 교사의 적시일이 될 수 있게 따라 하며, 교사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 있다고 느끼면 때 교사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천천히 이야기하고, 그들의 관심을 다시 높이기 위하여 어떤 놀이와 같은 일을 이야기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는 아이들에게 손가락 놀이, 몸짓을 하면서 노래부르기, 찬바로 놔두었던 찌그라 자석을 자극자에 넣어놓기 등 몸을 움직여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이해해질 것으로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며 생각을 알러 주기 전에는 말이 일어난 종합입니다.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당신의 호흡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생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벌리도 모르겠습니다. 교사는 「숫자나, 내 어버이가 마루바닥에서 앉아 있었는데, 비가 그 어버이를 습습하고 덜어내네라」의 원리에 따라 아이를 놀러가며 내 날산 삽을 들어올려요.」

아이들은 「내 자리에서 일어나는」이라는 일반적인 명령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절하게 악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숫자나는 샘이 쌓이고 있어요.」의 「칠이 어버이를 놓고 있어요.」 「볼이주는 아주 놀이에 풍고 있어요.」 「수정이 센 선생님을 따라잡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제발로 그와 같이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 끝날 때까지 질서가 유지됩니다.

여기자가 길단 후에는 무순일이 생김없이

여기자가 길단 후 그날 배운 것과 관련이 있는 행동은 그 아이들 각각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일어난 일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지거나, 손가락 놀이, 그림 붓이 가각, 아이들에게 공과 개별을 잊지 못해 주는 놀이도 무엇이든지 유용합니다.

아이들은 감수성이 향상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지요. 그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것을 잘 그 집에 있습니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처음으로 주일학교에 찾아온 아이가 기밥에 넘어 「나무에도 묶은 줄여움」을 못보라고 다시 오기를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 1 7 —
1968~1969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 주일학교

12월
한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3 : 16)

1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포세서 1 : 39)

2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 : 33)

3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잘너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 : 3)

4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고린도 전서 15 : 20)

5월
내가 죽겠노록 싸웠고, 모든 것이나, 내로 말미암지 않고
는 너희께서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 : 6)

6월

전리의 알게니 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8 : 32)

7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
일이요. (마태복음 5 : 8)

8월
사람이 물과 싱정으로 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
어갈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3 : 5)

유년 주일학교

11월~12월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요한 1서 4 : 7)

1월~2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 : 39)

3월~4월
나를 사랑하면 나의 제한을 지키라. (요한복음 14 : 15)

5월~6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 : 27)

7월~8월
주께서 명하신데로 가서 행겠으니라. (니파이 1서 3 : 7)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세상에도 적용된다고 점은 성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표준과 인기

폴 에이취, 덴

열마천, 그때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발 아이 하나가 매우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로서의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일곱 명의 소녀로 구성된 사회 구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네 명은 우리 교회 회원이었고 세 명은 비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인 네 아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세 아이들을 우리교회에 개종시키기로 압박하기에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는 일로 어느 날 모두 함께 검심을 먹고 있던 때 교회 회원 중 한 아이가 상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술했고 예의에 벗어나 드러 거북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인기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날 밤 우리집 아이가 집에 와서 그 사실을 상세히 말하면서 ‘아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 아빠가 그런 경우에 처했더라면 어떻게 하겠나,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대답해 주시는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제미있게 어울리면서 동시에 교회의 제반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동시에 제가 친구들 사이에 따름을 받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말 아이와 중 에가하던 저가 성경을 퍼서 예수님이 성경을 깔끔하게 하시던 일을 잊어춘 다음 덕아기에서 무언가 같은 것을 알을 수 없겠느냐고 묻어 보았습니다.

소신 간 행하고 해야립니다

「뭐 구세주께서 왜가 나셨죠!」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해 본 것을 이야기해 주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 해야할 밤을 받아야 할 때가 오게 마련이며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비록 어려운 일이더라도 정당하게 벌을 해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 주셨다. 얼마 동안은 고립된 상태로 보내게 되겠지. 그러나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에 나와 함께 다시 얘기해 보자.」

「어짜, 아빠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모르시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사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위력을 발휘하다

나는 나의 일을 하려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 갔습니다. 다음날 내가 집에 돌아 왔을 때 내 아내가 부엌에서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내가 들어서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소?」

내 아내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날 때문이겠어요. 지 보다 그 애들 와 주세요.」 나는 다른 위기가 생겼나 했었어요. 그래서 일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가슴을 벌컥涌现出은 일이 나를 치막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식을 가지고 투쟁한 내 귀여운 막이 혼자서 호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 무언 일이 일어났는데 나에게 밝혀봐.」

「아버지 할 세미있는 일이에요. 나는 오늘 신전을 갔고 있는 일을 과제로 말해야 해야했어요.」

「오 그래 너는 학교의 부정한 일을 없겠니?」

「아니, 나는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을 한 학생들을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하우 우리집에 같이 갈 수 있니?' '응',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친절로 해서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애들 갔어요. 그리고 저는 '예' 나는 베가 우리들의 우정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알자고 원해. 저에게 나는 젤망도 우리들 모두에게 올래가 놀랐고. 나는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나는 베가 말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 하지만 베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모두에게는 그 이야기는 우리교회 회원이 아닌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했다. 베가 그린 이야기를 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그런 농담이 상징히 주의를 끌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다음에 베가 이러한 농담을 또 하고 싶을 때는, 우리에게 말해 주셔서 자리를 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친구의 하림을 안으로 그 아이는 말했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아버지 저희들은 바른 시간이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 후에 「아버지 사시겠어요?」라고 묻었다. 「글쎄. 모르겠는데.」 나는 대답했다.

그에 그는 「신약 성경은 정답 사람을 응징할 수 있어요. 그걸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잘 것 없는 나의 방에서

게리 알. 헬치

나는 놀랐습니다. 예, 대단히 놀랐습니다. 집의 사방 밖은 혼리 휘습습니다. 넓은 지하실이 낮에는 빗방울이 몰아오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클✪한 가족들 속으로 몰래놓은 죽은 면으로도 빗방울이 들어옵니다.

나는 군사하게 보이는 여인숙에 있었습니다. 예나하면 이러한 것은 나에게는 좋긴 했지만, 전하게 해야 날이나 봄입니다. 예나하면 나는 마굿간이기 때문입니다.

호적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군사한 여인숙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내방에는 몇마디의 소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날 이른 아침 나의 주인은 마루를 닦고 새로운 밥지를 깔아 놓았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잘 해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족들은 대단히 유순했습니다. 가족은 한쪽 구석에 서서 잔을 조금씩 베품었습니다. 그들이 다 잘 무섭 나의 물그림히 아름다운 마굿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뚫려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내가 아주 싸이하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 왔습니다. 그 냄비 전화해 보이는 나의 주인이 문 앞에 비스듬히 서있었습니다.

「선생님 알 훌륭한 대야.」 와 낮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벌리 서둘려야 되겠어요.」

나의 주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바쳤습니다. 그 낮선 사람은 조그만한 당나귀 위에 좁을 때우고 내가 있는 마루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레 여자들을 신선하고 깨끗한 나의 밥실 위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답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낯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여자는 예기를 꾸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잘 것 없는 나의 방에서 하나 남의 아들을 태신시켰습니다. 보통에 보다 더 빛나는 별은 나를 비춰 주었고 나의 방안에 잠시나 그 영예로운 장관을 비주어 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친한 마굿간인지만 나는 창조의 대희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트루디 리치

“그가 오고 있겠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가 우리 마을로 오고 있습니다.”

“어디요?” 나는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늦길로 걸어가다니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며 놀이또건에 만난 수 있을까요. 나는 물결치듯 밀드린다. 마음 상하의의 흥미군을 실어왔으니까요. 어머니가 너를 봐도 않으리라던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기 위해서 한 점소의 주전자와 항아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와 항아리를 베쁘게 장식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도자가도 장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함께 다니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형님과 누님들이 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길에서 우리들의 방문자를 만났어요. 집으로 오는 도중 내내 태연히 그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 해야요. 나는 출발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나는 내 뒤에서 많은 사람들 음소를 들었 습니다. 내 친구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하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데 나는 누가를 따라 가는지 혹은 들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도 가지 못하나요? 작지지정하는 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들려서야 비로소 나는 그들이 나를 전혀 찾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햇빛 밑에서 그들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소는 점점 커지고 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도착하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색이 느껴운 아름다움을 틀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물러 있는 것처럼 돌려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봐있지 않으시는 데가 가져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까히 있을 때 들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렬히 그를 둘러싸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스러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긴장한 땜대 내 어깨를 감싸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마을 에서 나는 봐요 소녀님이.”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지지정하는 소리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희망은 마음의 끝을 시를게 하였고, 내 삶을 옮글 옮글로 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어온 손이 내 눈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아름다움을, 마음이 들려온 장상을 듣고 마치 게시처럼 내리고는 빛사이에 많은 그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온유와 동정이 넘친 눈 빛을 하신 분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태양하는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나는 겨우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나는 봐있었습니다.
상호 향상회를 통한
개인의 완성

성경을 찾아보면 개인을 강조한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도를 한분 한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도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화를 나누셨고 집장을 받는 부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각 개인이 불사 불멸과 영생을 삶속받기 원한다는 것을 직감하시면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영광이니라”하셨습니다.

상호향상회 역할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자신이 보기에도 중요한 일에 자세 개개인과 함께 일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상호향상회 투표그룹은 구물 즉 다수인의 참여를 위해 마련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개개인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향상회 각 부는 개개인의 특성을 찾아내고 개인으로 하여금 각 구별에 활동적인 참여를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밀로 필요로 할 때에 손에 손을 다정스럽게 잡아 주는 일은 일명생 임

자기가 가르치는 제계 자매님의 이름을 기억해 둔다는 것은 교사의 첫째 책임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한 사람씩 믿음한 관계를 가지는 첫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교사가 각 회원들의 성장을 천천히 알려례어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출생식이나 혹은 교회집회에서 보는 각양각색의 열광 표정 맛들은이나 느낌, 감정, 제능 등은 다양합니다. 일상 생활에서나 위험한 기간 동안 이거나를 박람하고 개개인의 심금을 울려준다는 것은 상향회가 받아 들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과업입니다.

그리고 예쁘고 많은 순진한 자매가 한 봉 있었듯이. 그 자매는 계절도 없고 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만 상향회 활동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참여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반교사와 활동교사는 자매가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성의에 갖은 감명을 받아서 될 수있는 대로 그 자매님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자
상호 향상회 역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자신이 보기에도 중요한 대개인 형제 자매와 함께 일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는 로드 쇼에도 출연하고 중창대회에 나가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수년동안 하루도 떨림없이 청년 상호 향상회 장미반, 월제반, 이사회기반에 깊이 빠져 있기에 꼼꼼히 자매들로 표장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무엇을 말계 도해내리라는 신비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의 간증은 놀라운 정도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자매의 성격은 외향적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진 것을 극복하고자 맡았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는 그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가 이렇게 된 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들 이러한 경지에까지 오게 된 것은 수년간 상향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양천도 역시 상향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가는 동안도 자기의 땅이 상향회이나 주일학교에 매점없이 참석하는 자기 만의 성의에 특별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가족은 그 자매님을 참석하는 집회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양천은 자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상향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원성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20세이 되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선교사님 을 놓기고 돌아온 것만 할 빛나는 경험이면 보나시 그리스인을 하고 이 도시 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몇 주일 전에 그 자매님과 남편 그리고 4자녀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마침 여행처럼 보이는 자바포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운 사람들들이 그 자매의 훌륭한 성품을 부터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부부가 거리를 걷을 때 지나는 사람들 다 이 훌륭한 두 부부와 자녀들 보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상향회와 하나님의 축복 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부부의 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한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지마다 한마디씩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거나 상향회는 이러한 도 한분의 상향회 자매님을 발견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형제 자매님들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성격, 교양, 능력이 어떻든 간에 형제 자매에게 개개인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을 찾게 하는 상향회의 책임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또한 영원히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기까지
중앙지방부 제13조 박재암

동양의 성인 공자는 정의를 보고 추종 거리는 것은 응시가 있는 태도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성자 태클의 명언집에 이르기 좋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정의라는 실체로서, 맡음을 영생으로 인도한다. 정의한 정의를 지키라. 그러면 그 보수로 끝내는 자가들의 모독도 멸어진 승리가 될 것이다.'

진리의 진주 위에 있는 예수님이 설교를 통하여 '의를 위하여 진하십시오. 나는 나이 그저의 정함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옳히고 정하십시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트러가 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조들의 아내가 집박하였습니다. 나', 말씀하셨습니다. 귀하의 사도 마우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정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내리니 너희가 주님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궤계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임하다. 우리의 힘은 힘과 온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나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창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놀리며 덜박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한 서서 진리로 너희를 빌며 미고 의의 힘을 붙이고 네가의 복음을 표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을 붙이고 이로써 악한자의 모든 화성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결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터……성도들을 위하여 간주하고……복음의 비밀을 알이며 알리게 하시고……나로 이 말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니라.'(베드소서 6:10-21)

진정으로 말씀의 선지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신임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철저히 한다면 그렇게 흔들어 하나님의 순교자로서 말씀의 흔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 것이요. 예수님과 바리사, 교도나 사도들에게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현실적인 위험에 대비했던 결과 오늘이 오늘의 당신간은 구원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성도들, 선배받은 주님의 아들 발달팀입니다. 이 계획, 이 영광을 달래히 전하는데 의의 방상을 들고 현재 나아가는데 부수고음나와 달망함과 차질과 상상적인 것들을 생각함은 지 지도자로서의 계획과 소망에 세상의 것이 되고, 이때까지의 공적이 여기를 그려 소련이 되고, 우선으로서 한 마디의 역할을 선의 뿌리로 헌신 hề있을 수 없는 무익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생활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25 —
리차드 앨 에번스
진리의 말씀
한 인간, 한 마음, 한 생애

『사람이 무엇이란 뜻서 저를 원고하시나이까』(사 8:4)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연구를 불러 일으켰다.

인간이 해 볼 수 있는 것—미술, 음악, 문학, 과학 등—은 너무 많아 타
열거할 수 없음을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정신, 영혼, 예지면
것은 무한한다는 것을 본능하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지상에 있어서 육체,
정신, 영혼을 가진, 과학적 구상으로나 모든 육체적, 정신적 기능으로 보아도
가장 훌륭한 기계 장치를 지니, 생각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의 존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가을 속의 지해는 누가 준 것이나? 마음 속의 종
명은 누가 준 것이나?」(롬 38:36) 고 주께서 용에게 들으셨습니다. 상처를
아름하게 하는 지해를 육체에 준 사람은 누구인지요? 우리가 이치를 따지고, 배
우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파기를 기획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으로 인해 경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더욱 경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 이 정신은 우리가 해서서만이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
을 알 때 진지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 고의로 판단 기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
다. 그렇습니다. 옥죄를 덧붙여 만드는 일이, 즉 옥죄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는
여러 것을 먹거나 해롭게 하는 것을 취하는 마위의 일은 얼마나 비합리적입니다.
무제한의 낭비는 일부나 옥죄를 손상시키고, 정신에 흑이 가게 하여, 그것을
회복히 하며, 마음속에 도 양심을 못내게 하며, 우리를 깊혀지는 행동을 제한하
게 합니다. 각 사람은 적절한 자기자신의 전부인 것입니다. 한 인간, 한 마
음, 한 생명의 것입니다. 현재는 제반리 지나가고 영원은 왼 없이 긴 것이며,
생명, 정신, 기억, 재능, 육체,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육체
의 기능이 주어졌는데도 어쩌면 그저도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패하는 일을
하며, 자신의 하녀님의 법—견장과 행복의 법—국가기관에서 꽤하고 분명
한 사고방식, 순결한 양심, 진전한 평화, 건전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
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올림이 없다면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분부터 600키로 이어지는 중앙방송
의 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AFKN(어린이방송)에서도 매주 일
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